



3면

프랑스서 관광협력 추진 토대 마련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음 9월 17일) 제3116호

대표전화 (063)288-9700

“강한 경제도시 도약·전주 대변혁 위해 혁신”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100일 맞아

“그간 조직개편 등 기틀 다져 지역발전 위한 정책 추진”

내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전주형 일자리 창출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등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출범 100일을 맞아 강한 경제도시 도약과 전주의 대변혁을 위해 과감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가치를 내건 우범기 시장이 신임화 시기를 거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진 전주의 대변혁과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 시장은 1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100일간의 전주가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규제 완화와 조직개편 등 벽을 허물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



우범기 전주시장이 1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00일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질의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다면서 “이제 미래 천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전주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도시 전체의 대변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 대변혁의 원년인 오는 2023년에 추진될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탄탄한 출발을 준비하고, 도시성장과 시민민족

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우 시장은 내년 상반기 내 ‘전주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 움직일 및 개발행위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을 추진기로 했다. 또 전주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은 내년 상반기에 철거를 완료하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남아 있는 석면건물도 철거하는 등 부지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 민선8기 시장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실현을 앞당길 신규시책과 국가예산

을 발굴하고,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재를 구성·구축 배치하는 등 대변혁의 원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우 시장은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전주일자리로 지정 받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조속한 산단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를 확대하는 등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전주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호남제일문 일원을 새로운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만드는 등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끝으로 우 시장은 장애인종합복지회 관 건립으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거점공간인 장애인일자리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신명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우 시장은 앞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100일간 전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장방향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당면 현안을 챙기고 강한 전주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

기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및 고도지구 층수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 및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해 (주)지광 대표와의 공개 협의에 이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건물 철거를 논의하는 등 해묵은 현안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물꼬를 트기도 했다.

우 시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8기 첫 번째 조직개편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전주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의 새로운 미래 천년을 열어갈 큰 꿈과 비전을 새롭게 그릴 ‘전주시 정연구원’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설비를 앞두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역사와 문화 등 지킬 것이 많은 도시이며, 취임 100일간 ‘지킬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서 “이제 그 핵심가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감히 변화시키고 혁신해 나가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전국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결단식서 필승 다짐
26개 종목 500명 출전... 19~24일 울산 일원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이 1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2층 대강당에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된다. 전북 선수단은 31개 종목 중 26개 종목에 500명의 선수단이 출전.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선수들은 사 이을 이도연, 김용기, 김정민 선수의 대회 3관왕과 신기복 달성, 태권도 이수민 선수의 품새개인전 2연패 도전. 도요패달림픽(장애인올림픽) 은 메달리스트 탁구 백영복, 이근우 선

수, 지난 5월 브라질데플림픽(농아인 올림픽) 유도종목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이현아 선수, 올해 국가대표로 첫 발탁돼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양궁 김경화, 펜싱 류은환, 수영 장준우, 사격 유영권 선수, 그리고 지난대회 전국체전 첫 출전해 3관왕을 차지했던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다. 특히 이번대회는 양궁 신현진, 조미나, 유도 최선웅, 승마 유재룡, 카누 고영규, 댄스스포츠 김성현, 휠체어 테니스 강시현, 김영미, 육상 형성민

선수가 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 신인 선수들로, 대회 첫 출전 성과도 주목된다. 이 밖에 구기종목에서는 여자자식 배구, 뇌성·정각·시각축구, 지적농구, 휠체어럭비, 개인종목으로는 사 이을, 양궁 태권도 육상필드, 론볼 보치야, 탁구, 휠체어펜싱, 골프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결단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도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종목 경기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등 험겨운 시간을 이겨내며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선수,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이 1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2층 대강당에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지도자, 가족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기 때까지 컨디션 유지 잘 하고 18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선수

단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간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전북개발공사

도 언제나 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공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들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